



4면

오늘 전주한옥마을서 '조선밥' 향연

전주매일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음 1월 4일) 제27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약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 천변 2길 6번지

전북,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오늘부터 28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일부는 '예외'·기존 식당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부는 명절 연휴 이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새롭게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351명으로 수도권은 정체 양상, 비수도권은 감소세로 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인한 시민경제 피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조정하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되며,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원안을 수용해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5단계를 적용하고, 달라진 방역수칙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도의 정부 발표로 달라진



정부가 명절 연휴 이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새롭게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도가 정부 원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원영 도민안전실장(사진 왼쪽)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방역수칙은 먼저,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기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되며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방역수칙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테이블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간 연장되지만, 직계가족과 시설관리

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실내·외 시설 풋살장, 축구장·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내 운영이 중단됐던 일부 공공체육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모임·파티 등 지나친 원화 분위기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되고,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된다.

전북도의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으로 변화된 수칙은 우선, 모임·행사는 500인까지는 가능하지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이상 4

종은 100인 이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종교시설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30%, 국·공립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의 30%~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는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이어져 언제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거래가격 거짓 신고·전매 제한 등
전주시, 신고센터 온라인으로 운영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내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만 거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 마련된 전화(063-281-2121)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전매금지(제한) 기간 내 아파트 사고 파는 행위 ▲타인 명의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지만 중개사 없이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거래 신고된 행위 등)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

폰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거짓신고가 명백하거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와 중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 등은 자동 종결 처리된다.

또 불법거래인지 잘 모르거나 의도치 않게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당사자의 경우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줄기로 했다. 이상거래로 의심돼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면한다.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현재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조사가 진행될수록 최초의 불법행위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을 갖고 장난치는 불법세력이 발붙이 시 못하도록 시민 모두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어촌체험 휴양마을' 특산물 온라인 할인 판매

전북도, 28일까지 고창 만들어촌 지주식 김 2속 33%·곱창김 1속 32% 할인

전북도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어촌 특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 판매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도는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온라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된 어촌체험관광 할인지원(현장 카드 30%할인) 사업을 대신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전국 9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생산하는 특산물로, 도내 특산물로는 만들어촌체험마을(고창군)의 지주식 김 2속(200장)을 33% 할인(2만7,000원→1만7,850원), 곱창김 1속(100장)을 32% 할인(3만19,500원→2만16,810원)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쿠팡(www.coupang.com)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App)의 '어촌체험 휴양

마을 특산물 30% 할인 기획전' 메뉴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기획전 내에서 원하는 특산물을 골라 쿠폰을 적용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할인 한도는 3만 원으로 제한된다.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는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바다여행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맘에 드는 어촌관광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뒤, 바다여행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의 댓글로 인증사진을 남기면 총 10명을 추첨해 아이패드 등 경품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와 별도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민과 어업인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총 8회에 걸쳐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개최해 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판매처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대체인력제 운영 시스템 구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공무직원의 휴가 또는 병가시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대체인력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직원 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풀제를 운영하지 않아 학교에서 필요인력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각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직종을 구분한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 코너를 개설·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4개 시군 공통으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신규 코너를 개설하고, 직종 구분에 따라 연락처 등 대체인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에서도 대체인력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희망직종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력풀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 확인, 홈페이지 입력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